

## 계 열 문 항 1

<가>

정보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가 왜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일반적으로 인격 훼손으로 여겨지는가? 그것은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동시에 개인의 자율의 조건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가장 표본적인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는 누군가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의지에 반해 우리를 엿듣고 관찰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관찰당하고 청취당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러한 행위가 우리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에도 반하지 않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다.

정보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는 것은 내가 내 정보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통제권을 상실한다는 것은 동시에 나에 대해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에 관한 우리의 기대와 예측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다른 사람이 나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할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또는 알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만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사회적 관계에서 항상 우리 자신에 관한 타인의 지식을 전제하고, 이 전제로부터 특정한 행위를 기대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의 행위를 올바르게 기대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삶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수치심이나 당혹감과 관련된 문화적인 경험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한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보지 않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 또 어떤 삶을 연출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적 공간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행동한다.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를 관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수치심이나 분노를 느낀다. 왜냐하면 다른 관찰자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은 자유의 특성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의 의지에 반해서 우리를 관찰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나>

인터넷이 1990년대에 거대한 사회 현상이 된 이후부터 사람들은 인터넷이 자신들의 사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걱정해 왔다. 가끔 심각한 스캔들도 터져 나와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 미국 국가안보국이 전자 통신을 감시한 사실에 대한 작년의 폭로는 그저 최근에 발생한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대부분의 경우 이어지는 논쟁은 누가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어떻게 수집하고 저장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다. 이런 스캔들을 알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건강, 재정, 사회관계, 정치적 활동 등에 관한 정보에 누가 접근해 왔는지를 걱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대중의 이런 걱정은 기술적인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개인정보의 수집과 저장은 지금도 사방천지에서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사람들은 알면서도 매일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정부기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통신판매회사, 금융기관 등 여러 분야의 다양한 조직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런 조직들 외에 다른 많은 조직들도 ‘수동적인’ 수집을 통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얻고 있다. 사람들은 다른 일을 할 때도 데이터를 어떠한 조직에 제공한다. 예를 들면, 그저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고 할 때 GPS 연동이 되는 휴대전화도 같이 이동하며, 이 때 위치에 관한 데이터가 통신회사에 제공된다. 사람이 살면서 일종의 부산물인 ‘데이터 배기가스’를 전혀 내뿜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고 데이터가 저장된 장소가 어디인지,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해당 장소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알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그런데 더 강력한 프로세서와 서버는 이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서 개인의 취향과 행동에 관한 새로운 통찰과 추정을 가능하게 했다. 이것이 ‘빅 데이터’ 시대의 현실이다.

<다>

투명성은 자신의 데이터를 알 권리다. 투명성은 어떤 데이터를 누가 갖고 있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내가 얻는 결과에 기여하는지 등을 알 권리를 망라하는 개념이다. 한쪽 면만 보이는 반사 유리의 어두운 저편에서

기업이 당신을 관찰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업과 당신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수집된 데이터의 이용 현황을 볼 수 있는 창구가 당신에게 제공되는가? 원하는 데이터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얼마나 많은 개인 데이터를 공유해야 하는가? 예로부터 기관과 개인 사이에는 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심각한 정보 비대칭이 존재한다. 기관의 데이터 수집 능력이 개인보다 클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당신의 데이터를 다른 사람들의 데이터와 비교하여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는 것과 받는 것이 무엇인지 명백히 드러나야 한다.

그러나 투명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주체성 또한 필요하다. 주체성은 자신의 데이터를 스스로 이용할 권리를 망라하는 개념이다. 데이터 기업의 기본 설정을 쉽게 찾아내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는가? 데이터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제한된, 주로 기업에 유리한 옵션 중에서 선택하도록 유도되거나 강제되지는 않는가? 변수를 이것저것 변경하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시험해볼 수 있는가? 주체성은 데이터 기업이 분석해낸 선호와 패턴에 기반하여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다. 여기에는 데이터 기업에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할 권한도 포함된다.

1. <가>의 관점에서 <나>의 문제를 파악하고, <다>를 활용하여 해결 가능성을 논하시오. (1000±100자, 45점)

## 계 열 문 항 2

### <가>

북극 바다에 고기가 있는데 그 이름을 곤(鯨)이라 하였다. 곤의 길이는 몇천 리나 되는지 알 수가 없다. 그것이 변하여 새가 되면 그 이름을 봉(鵬)이라 하는데, 봉의 등도 길이가 몇천 리나 되는지 알 수가 없다. 봉이 떨어지고 날아오르면 그 날개는 하늘에 드리운 구름과도 같았다. 이 새는 태풍이 바다 위에 불면 비로소 남극 바다로 옮겨갈 수 있게 된다. 남극 바다란 바로 천지인 것이다. 『제해(齊諧)』에 적혀 있기를 “봉이 남극 바다로 옮겨갈 적에는 물을 쳐서 삼천 리나 튀게 하고, 빙빙 돌며 회오리바람을 타고 구만 리나 올라가며, 육 개월을 날아가서야 쉬게 된다.”고 하였다.

아지랑이나 먼지는 생물의 숨결에도 날린다. 하늘이 파란 것은 멀어서 끝이 없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아도 역시 이와 같을 따름일 것이다. 또한 물의 깊이가 깊지 않다면 큰 배를 띄울 만한 힘이 없을 것이다. 한 잔의 물을 웅덩이에 부어 놓으면 곧 지푸라기가 그곳에서 배가 되어 뜨지만, 잔을 놓으면 땅에 붙어 버릴 것이다. 물은 얕은데 배가 크기 때문이다. 바람의 쌓임이 두껍지 않다면 거기에 큰 날개를 띄울 힘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구만 리나 올라가면 바람이 그만큼 아래에 있게 되어 그렇게 된 다음에야 이제 바람을 탈 수 있게 된다. 푸른 하늘을 등짐으로써 아무런 거리낌이 없게 된 다음에야 이제 남쪽으로 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매미가 그것을 보고 빙그레 웃으면서 말하였다.

“우리는 펄쩍 날아 느릅나무 가지에 올라가 머문다. 때로는 거기에도 이르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는 수도 있다. 무엇 때문에 구만 리나 높이 올라 남극까지 가는가?”

가까운 교외에 갔던 사람은 세 끼니의 밥을 먹고 돌아온다 해도 배는 그대로 부를 것이다. 백리 길을 가려는 사람은 전날 밤에 양식을 짊어 준비한다. 천리 길을 가려는 사람은 석 달 동안 양식을 모아 준비한다. 이 별례는 무언가를 아는 것이다.

### <나>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보면, 지구는 하나의 점이다. 저 점, 그것은 바로 여기, 우리 집, 우리 자신인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 당신이 들어본 적 있는 사람들, 존재하며 삶을 살았던 그 모든 인간들은 저 위에 있었다.

우리의 기쁨과 슬픔, 굳게 믿고 있는 수천 종의 종교들, 이데올로기, 경제이론, 사냥꾼과 약탈자, 영웅과 비겁자, 문명의 창조자와 파괴자, 왕과 미천한 농민,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 엄마와 아빠들, 꿈 많은 아이들, 발명가와 개척자, 도덕을 가르친 선생님들, 부패한 정치가들, 슈퍼스타, 위대한 지도자, 성자와 죄인들, 그 모두가 저 햇빛 속에 떠도는 먼지와 같은 작은 점 위에 살았던 것이다.

우주라는 광대한 스타디움에서 지구는 아주 작은 무대에 불과하다. 인류 역사 속의 무수한 장군과 황제들이 저 작은 점의 극히 일부를, 그것도 아주 잠깐 동안 차지하는 영광과 승리를 누리기 위해 죽었던 사람들이 흘린 피의 강물을 한번 생각해 보라. 저 작은 점의 한쪽 구석에서 온 사람들이 같은 점의 다른 쪽에 있는, 겉모습이 거의 분간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저지른 셀 수 없는 만행을 생각해 보라. 얼마나 잦은 오해가 있었는지, 얼마나 서로를 죽이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런 그들의 증오가 얼마나 강했는지 생각해 보라. 위대한 척하는 우리의 몸짓, 스스로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은 저 창백한 파란 불빛 하나만 봐도 그 근거를 잃는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거대한 우주의 암흑 속에 있는 외로운 하나의 점일 뿐이다.

### <다>

한 사회를 설명하는 신조어의 생명은 짧지만, 파급력은 강하다. 나는 근래 한국 사회를 수놓는 신조어 중 ‘소확행(小確幸)’에 관심이 많다. 우리, 작은 것에서 행복을 보자! 그렇게 소확행은 시작된다. 친구와 몇번

놀러 갔던 제주도는 소확행을 지속할 터가 되곤 한다. 동네에, 자신의 마음이 평안한 조그만 규모의 서점을 열고, 서점을 겸하는 작은 카페를 차린다. 이뿐만인가? 애초에 소확행을 언급했던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같은 일상, 그 맛을 떠올려 보자. 식빵을 잘게 뜯어 먹을 때의 소소한 기쁨처럼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에 감사하기. 포털사이트에 소확행을 쳐서 나오는 흔적을 검색하면, 소박함이 끼친 감동이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지 적은 기록으로 넘쳐난다.

그런데 소확행에 깃든 삶의 '작은' 가치와 그 소중함을 우리는 다른 시각에서 챙겨볼 필요도 있다. 내가 '작은'이라는 말에만 굳이 작은따옴표를 친 까닭은 우리네 생활에서 '작지만 그래서 소중한'으로 시작하는 가치관의 설팬에 담긴 그늘을 언급하고 싶어서다.

지난해 한창 활동하면서, 미래를 타개해 보려는 20대 사진작가들과 대화할 자리가 생겼다. 생각을 주고받던 중 한 작가의 쏘아붙이는 말투가 인상 깊었다. "아니, 비평가들은 뭐만 하면 내 작품 보고 소품 같다고 그래요. 내 작품 당신 말처럼 그렇게 자질구레하지 않아요, 내 작품 속에는 대작들과 겨루어서 이기려는 나의 야심이 들어 있다구요." 귀가하면서 그 사진작가의 지적이 맴돌았다.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점은 사진작가를 포함한 오늘날 '독립생활자'로 불리는 이들이 자신을 소박한 행복의 전도사로 쉬이 지칭하려는 언론과 여론의 분위기에 휩싸여 허덕이기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물어야 한다. 어떻게? 이런 질문을 던져 보자. 독립생활자라고 해서 모두 소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 정도의 삶이면 충분합니다' 같은 모토에 충실한 현대인의 유형이라고 여겨야 할까? 아니 이렇게 물어 보자. 그들은 정말 야심을 버렸는가? 언론매체는 왜 독립생활자를 '야심 없음'이라는 프레임에 가둘까? 독립생활자에게도 야심이 있지 않을까? 이들의 야심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을 정녕 해왔는가?

몇 달 전 필자는 독립생활자들의 삶에 대한 좌담회를 가졌다. 이 좌담회에서 독립생활자가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해온 J씨의 예민한 생각이 필자의 마음을 형클어 놓았다. 나는 야심을 덜어내고 적절한 수준의 경제적 이윤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목하는 담론이 하나 둘 나오는 것 같으며, 이 담론이 주시하는 대상이 바로 패널로 모신 분들을 총칭하는 독립생활자인 것 같다고 말을 건넸더니 J씨는 바로 이견을 제시했다. 그는 독립생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서 왜 야심을 배제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의 비판을 들으면서 필자는 왜 자신의 작품을 무턱대고 소품으로 치부하느냐고 하던 사진작가의 말이 떠올랐다.

2. <가>의 매미와 <나>의 서술자가 지닌 가치관의 공통점을 서술하고, 이를 통해 <다>의 독립생활자의 삶의 태도를 평가하시오. (1000±100자, 55점)